

# “전문성 곧 의회 경쟁력”...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전남도의회, 디지털 환경 대응 정책지원관 워크숍 주민 소통 방식 개선 중점...뉴미디어 대응력 강화

전남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의정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광양시 일원에서 '2026년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책지원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유튜브·SNS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영상 제작 실습과 온라인 홍보 전략 수립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의정 홍보 전략과 주민 소통 방식 개선에 중점을 두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단순 보도자료 작성 수준을 넘어, 콘텐츠 기획과 확산 전략까지 아우르는 실무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대균 의장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곧 의회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드는 노력의 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전문 의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신뢰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광양시 일원에서 '2026년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4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차량을 후원했다.

##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 장애인자립센터에 차량 후원

### 창립 52주년 기념 차량 전달...사회참여 확대·복지 증진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4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차량을 후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기아 모닝 1대 (1750만원 상당)로, 장애인의 이동 지원

과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활동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은 지역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기대

하고 있다. 정현수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 50명의 정성을 모아 차량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활동 기조인 ‘하나된 진남, 함께하는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희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후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여수진남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약 2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필리핀 이토곤 광산지역 로이칸 초등학교에 정보교실을 건립하는 등 4500여만원을 지원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 광주도시공사, 취약아동에 냉·난방 가전 후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앞장...2000만원 지원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5일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2000만원 상당의 냉·난방 가전을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돌봄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승남 사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



이들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방카홀릭클럽 발대식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25일 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방카홀릭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 '방카홀릭클럽'은 관내 28개 방카슈랑스 매니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율 학습조직으로 방카슈랑스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NH농협은행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방카슈랑스란 영업점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 회사와 제휴해 대리점이나 중개사 자격으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형태를 의미한다. 전남 진행된 교육은 NH농협은행 WM 사업부 방카슈랑스팀과 외부 강사들이 함께 참여해 방카매니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로 멘토·멘티 중심의 코칭형 상호 학습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개별적이고 다양화된 고객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하고 차별화된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금융소비자들이 신뢰받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보환연, 찾아가는 과학교실...초등생 10회 운영 공기구조대·환경경찰관 등 5개 주제 체험형 교육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동부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기심 과학교실’을 운영하며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 돌봄·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연구원 보건·환경 분야 전문 인력과 실험 장비를 학교 현장으로 직접 투입하는 체험형 교육이다. 교실 안에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10회 운영되며 △충돌! 공기구조대 △환경경찰관, 물벼룩 살펴보기 △날아라 환경지킴이 (이동차량·드론) △관찰탐구! 모기보고 튀어! △알록달록 식품첨가물 이야기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대기·수질·식품 안전 등 일상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1월에는 좌야초등학교에서, 2월에는 토지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흥미를 높였다는 평가다. 3월 27일에는 다시 토지초등학교에서 과학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동부권 찾아가는 호기심 과학교실은 2024년 50명, 2025년 186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양준 원장은 “보건·환경분야 체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순천 좌야초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호기심 과학교실 모습.



함평군은 지난 24일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함평군, 3년 연속 ‘축제콘텐츠’ 관광 부문 대상 차별화된 콘텐츠·체계적인 인프라 등 인정

함평군이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에는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와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를 대상으로 △경쟁력 △콘텐츠 우수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함평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군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운영한 점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모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축제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인근 상권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군은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를 운영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축제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를 기획해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 광주환경공단, 승촌보 캠핑장 고객 만족 77.8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사진)은 지난해 승촌보 캠핑장 이용자 고객 만족도가 77.8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시설 노후로 인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 하락하던 만족도가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 성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지난해 캠핑장 내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 등 기초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리모델링했으며, 하절기 온도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4개소 신규 설치했다. 또한 노후 캠핑 데크 정비와 CCTV 교체 등을 이용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연환경 체험을 위하여 밤 10시 이후 매너타임을 운영하는 등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현장 근무



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 응대 품질을 한단계 높였다. 공단은 올해에도 그늘막 및 휴게 공간 추가 조성, 화장실 1개소 신규 교체, 어린이 놀이터 교체 개선, 이용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등을 통해 시설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단 김병수 이사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설을 개선한 것이 만족도 상승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승촌보 캠핑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